

한국불교학회 학술세미나 격려사

오늘 한국불교의 인적, 학문적 산실인 한국불교학회와 한국 신행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공동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제51회 전국불교학술대회 겸 국제학술회의를 봉행함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학회는 1973년 처음 창립된 이후 종교, 철학, 과학 등 학술 전반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조사·발표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대표적인 불교학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학문적으로 불교교단을 외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한국불교 신행문화와 순례문화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8산사 순례 기도회가 펼쳐오고 있는 농촌사랑, 환경사랑, 군장병사랑 운동과 다문화가정 108인연 맺기, 108효행상, 108장학금 수여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포교 신행문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학과 신행문화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순례문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를 개최하니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진행되는 2010년 제51회 전국불교학술대회 겸 국제학술회의가 여법하게 봉행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조명하고, 이를 통해 불교가 지구촌 곳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세계의 저명한 불교학자들과 국내의 학자들 그리고 불자님들이 참석합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새로운 순례문화 정립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불교학회와 108산사순례기도회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